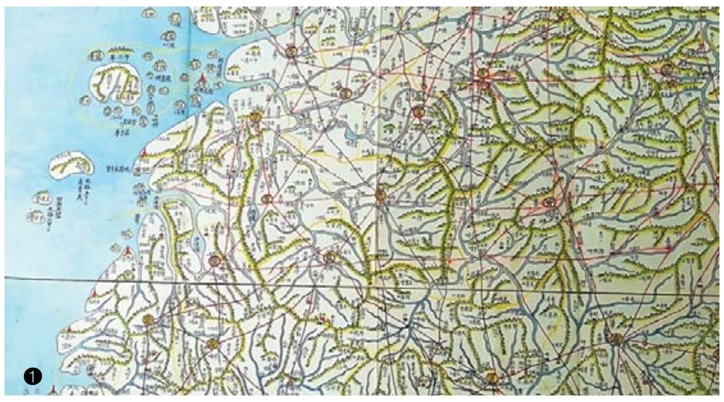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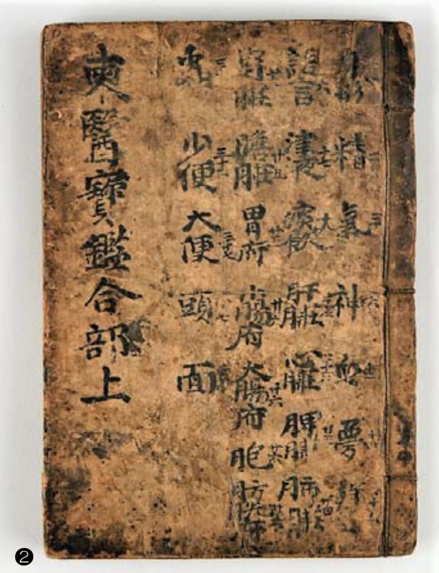




❶김정호가 만든 동여도지도
❷동의보감
❸약연

선비, 역병을 막다

국립전주박물관, 7월 31일까지 주제전… 동의보감 등 유물 선보여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제전 '선비, 역병을 막다'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동의보감 등 12건 12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17일 국립전주박물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제전 역시 선비문화 탐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번 주제전에 선비의 휴대용 의학서적과 의료기구도 전시된다. 뿐만 아니라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친구의 안부를 묻는 절절한 내용의 편지도 출품됐다.

조선 시대에 역병이 창궐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통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전염병에 대해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거나, 무속의 힘을 빌려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선비의 정신은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큰 울림을 주곤 한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여유당전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조선 후기의 학자다. 하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가 겪어야 했던 슬픔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그가 저술한 홍역 치료법 책인 '마과회통(麻科會通)'의 완성에는 절절한 사연이 담겨있다. 아내에게서 아들 여섯과 딸 셋을 두었던 정약용은 아들 넷과 딸 둘을 천연두나 홍역으로 잃었다.

특히 아꼈던 둘째 딸과 넷째 딸을 잃게 되면서 깊은 슬픔에 빠진 정약용은 죽은 자식들과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1797년 홍역 예방법 서적인 '마과회통'을 저술하게 된다. 자신의 고난을 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환원시킨 정약용의 모습은 진정한 선비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약용보다 100여 년 전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동에는 정중기(鄭重器, 1685~1757)란 선비가 있었다. 그는 역병의 창궐로 부친과 모친을 모두 잃고 만다. 전염병이 확산되자 새로운 땅으로 옮겨 병을 이겨내고자 하여 지금의 삼매리인 매곡지역으로 이주했다.

이 땅에서 '간소(艮巢)'라는 이름의 서재를 짓고 전염병을 피하며 틈틈이 공부에 몰두했다. 간소라는 뜻은 소박한 초가집이란 뜻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가격리를 하며 전염병을 피한 것이다. 결국 43세에 과거에 장원급제한 정중기는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계를 버리고 낙향을 한다. 매곡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고 이상향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의 싹을 키워나갔던 정중기식 거리두기는 깊은 울림을 남기게 한다.

시간과 공간은 변했으나 선비가 남긴 유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로 귀결된다. 즉 현실 극복 의지와 사람 사이의 연대, 그리고 따스한 인간애다. 이것이 2020년 현재 옛사람에 비춰 우리를 되돌아보는 이유일 것이다.

/장은성 기자

고전소설 관련자료, 순창으로 왔다

이목규 서경대 교수, '설공찬전' 관련 소장자료 150점 군에 기증

서경대학교 이복규 교수가 17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설공찬전' 관련 소장자료 150점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복규 교수를 비롯해 황숙주 순창군수, 설동승 금과면장, 경주순창설씨 대종회 설명환 순창지회장, 금과면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고전소설 학계의 권위자로 '설공찬전' 필사본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다.

황 군수는 "소중한 자료를 순창에 기증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 자료를 테마관 조성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이 교수는 "설공찬전의 배경지인 순창에 관련 자료들을 기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기증 자료를 잘 활용해 설공찬전의 의미를 모든 국민이 아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설공찬전'은 조선 전기의 문신 채수가 1511년 집필한 소설로 '금오신화'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고전 소설이자 최초의 국문 번역 소설로 국문학사적 가치가 높다. 순창을 배경으로 귀신과 저승을 주요 소재로 활용했다.

당대 정치와 사회문화, 유교 이념의 한계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어 당시 조정이 금서로 규정하고, 혹세무민 죄목으로 소설 판본을 소각했으며, 숨겨 보관한 이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중종실록'에 기록돼 있다.

순창군은 금과면에 조성된 쉼터를 리모델링해 '설공찬전 테마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7월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10월에 착공해 내년 초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테마관이 지어지는 금과면 매우 마을은 설공찬전에 나오는 실존 인물 후손들의 집성촌이기도 해 향후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문학

전주시, 내달 2일까지 전통문화전당서 인문학 콘서트

조성환 · 이병한 '개벽파 선언' 공동저자 등 참여 총 3회 진행

전주시가 명사들의 삶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하는 인문학 강좌를 연다.

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시민 대상 인문학 콘서트인 '인문학 향기 넘치는 전주'를 총 3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문학 대중강좌는 2014년 이후 8번째다.

인문학 콘서트는 '또 다른 세상 상상'을 주제로, 명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7일 열린 첫 강연에서는 '개벽파 선언'의 조성환, 이병한 공동저자가 참여해 동학사상과 경천 · 경인 · 경물 등 세 가지 가르침을 중심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삶과 문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24일에는 한지혜 소설가와 함께 '삶은 어떻게 문학이 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에는 김만권 정치철학자와 '대한민국, 우리의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50명으로 축소, 운영할 방침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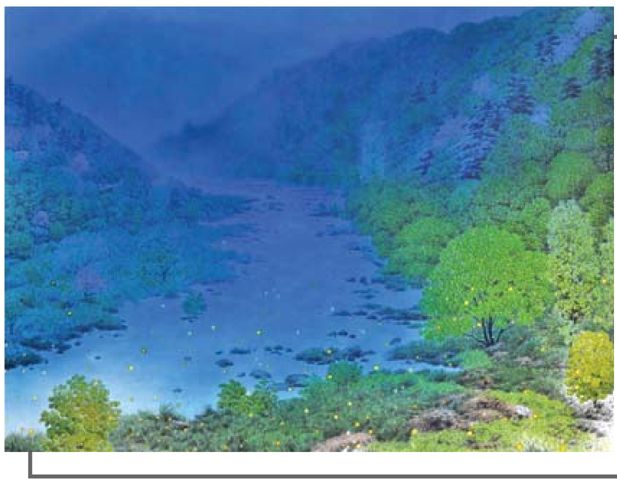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e.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평생학습관(063-281-53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모든 생물은 빛이 있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gallery숨 기획 '공감 · 공유'

22일 문재성 개인전 'Dream'



문재성作
'반딧불이'

오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gallery숨에서 'Dream'이라는 전시명으로 문재성 개인전이 열린다.

gallery숨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에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하는 gallery숨의 의지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빛이 없으면 사물의 형이나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채색의 공간이 된다. 모든 생물은 빛이 있음으로 해서 생물이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아가게 되고 빛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게 되고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기본 수단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빛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빛의 여러 가지 색파장 중에 있는 빛을 보거나, 사물 자체가 발광하여 빛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색을 보고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데, 빛은 빛을 접하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 간절한 마음속 구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꿈이요, 희망이 되기도 하며, 양초처럼 자신을 태워 스스로 빛을 발함으로서 세상에 등불이 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할 것이다.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문 작가는 반딧불이는 발광 생물로서 스스로가 발광하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딧불이'의 신비한 불빛은 어릴 적 동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반딧불이는 가로등도 없는 아주 깜깜한 밤! 그 작은 불빛은 몽환적이고도 하지만 위로와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너무나 절박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비록 작더라도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 질 때가 있다.

나에게 반딧불이는 유년의 기억과 추억이고 상상이고 꿈과 희망의 메세지를 담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생을 마치기 때문에 깨끗함 연상케하고 환경지표종으로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그대로 순수 본연의 의미를 담아 작품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성 작가는 한국미협, 전업작가, 원묵, 환경미협회원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우수상, 한국화대전 특선, 한성백제미술대전 우수상, 개천미술대전 장려상 외 20여 회 입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호원대-음악실연자연합회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협회장 김원용)는 17일 총장실에서 실용음악학부 산업체 위탁과정 개설을 위한 산학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산업체에 근무 중인 직장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발전은 물론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4년제 정규 학사학위 과정이다.

이날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김원용 회장,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실용음악학부 위탁학과 개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교육과정 이수 후 학사 학위 취득 지원 등이다.

강희성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들이 우리대학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청소년 '북튜버(Book+Youtuber)' 키운다

전주 평화도서관, 20일부터 책 활용 영상제작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책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평화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북튜브 교육 프로그램인 '내멋대로 리뷰하는 자유로운 북튜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북튜브는 책을 리뷰하는 등 책에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북튜브 제작 교육은 지역 내 14~16세 청소년 5~10명을 대상으로, 독서활동과 유튜브 편집기법 등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평화도서관에 방문 또는 전화(063-281-6429)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북튜버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읽기에서 벗어난 확장된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북튜브 관련 독서활동 동아리를 양성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2020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 북튜버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전주독서대전에 대한 관심도 높일 방침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책이라는 매체의 장점을 청소년들이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와 접목해 생각의 저변을 넓힘으로써 도서관도시 전주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문화재단, 18일부터 임원 공모

전주문화재단은 재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표이사와 비상임 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표이사 및 비상임 이사 2명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새롭게 뽑힐 이사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재단은 새로운 대표이사 등 이사 임용을 위해 전주시와 시의회, 재단이사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2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표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재단 이사장(김승수 시장)이 후보자들 가운데 적합자를 최종 임명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